

“시험을 삼는 자의 복”

약 1:9-15

포브스 메가진에 뉴욕 5th Ave 에 위치한 68 층짜리 최고급 아파트인 트럼프 타워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유하게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성공하고 부유할지 모르지만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갈수록 환경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 위크의 칼럼니스트인 로버트 사무엘슨은 “풍요는 근심을 낳는다. 왜냐면 풍요는 더 많은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자기 풍요는 자신들을 오히려 파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옛날에 비해 잘 살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란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욕망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세상의 부와 성공에 대한 정확한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물질에 대한 관점을 회복하라!

당시 많은 성도들이 물질적인 가난 때문에 비참해하고 부자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물질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 1:9-11)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큰소리 치며 부유하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자신은 극도로 궁핍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차적이 가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빈부를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보라고 합니다. 가난과 부를 걸을 나타난 물질적인 풍요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들어 있는 정신적이 축복도 함께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석기에 돈이나 명예가 전부인줄 알고 그것만 붙잡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재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 보다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재산과 건강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실패한 성도는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자이지만 실패를 통해 믿음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면 그 실패는 더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가 가장 부요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2. 마음의 탐심을 도려내라!

“(약 1:1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원어로 ‘페이러조마이’ 인데 이것은 육체적이나 물질적이 어려움이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무서운 욕망이 있어서 충동을 받으면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간이 마음에는 언제나 기름이 있는 상태입니다. 불씨가 떨어지면 불이 언제든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참고 있다가 충동을 받으면 죄가 폭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걸려들어서 죄를 지으면 한 순간에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유혹에서 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시험이기 때문에 물리치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약 1:14-15)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욕심을 빨리 포기하지 않고 그냥 두면 반드시 죄를 짓고 결국 파멸하게 됩니다. 죄는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죄는 나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죄로 발버둥쳐도 낚시에 걸린 고기와 같은 신세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의 초기 단계에 아주 단호하게 잘라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끊어 준다는 것입니다. 죄는 아무리 거머리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기게 합니다.

3. 시험을 참아내라!

“(약 1:12)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 임이니라”

‘참으라’는 것은 지금이 끝이 아니고, 이후에 분명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뒤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인생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아름다운 도자기로 빚고 계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하나님의 도자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견디면 됩니다. 어느 순간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대신에 시험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 40 년을 돌게 되어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루 하루 견디고 감당해 내십시오.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기간이 있다는 것이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뒤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믿음과 인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신앙에 이 두 가지 요소가 부족하면 결코 성공적인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와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우주와 만물과 인간과 역사를 지배하시는 절대주권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33 장 2 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요 5:1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을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의심, 두려움, 분노, 낙심 등을 참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가장 큰 결점이 참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 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다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 가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땅에 들어갔을 때 흥년을 참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둘째는 85 세에 참지 못하고 여중 하갈을 취하여 86 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많은 슬픔이 중동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참지 못하므로 오늘날 이와 같은 큰 비극이 임한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싸워야 했던 ‘괴테’라는 작가는 60 년간에 걸쳐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괴테는 후에 그의 전기를 쓰게 되었는데 그 제목은 ‘고통과 환희’였습니다. 그는 고통을 인내했으며 결국 ‘환희’라는 진주를 캐내었습니다.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말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인내였다. 즉 인내가 모든 발견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아야만 받는 것입니다. 성급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탈무드에는 ‘성공의 절반은 인내심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물론 인내한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견디어 내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견디어 낼 수) 있다”는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복음의 소망 안에서 인내하시어 시험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물질로 인하여(혹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 불편했던 경험들을 나누어 주시고,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귀한 영적인 복들은 무엇인지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3. 건강한 소망과 탐심을 분별하는 방법과 탐심에 대한 영적 대처방법들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4. 각자의 삶 속에서 인내 끝에 얻어진 영적인 열매들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인내의 기간과 인내의 과정들 포함)
5. 10월 20일 사랑나눔축제를 준비하며 VIP로 품을 영혼들을 종이에 적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